

광주시립예술단체 '생동하는 봄' 알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7일 대구시립합창단과 영·호남 교류음악회 '새 봄·우정·희망'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승원 비올리스트 정원영 바이올리니스트

에 올린다. 슈만이 클라리와 결혼을 약속한 곡이다. 전 악장이 생기와 행복감으로 가득하다.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학생 50% 할인).

슈만의 다른 교향곡은 오는 15일 시향 가족음악회 '로맨티시즘'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 김영인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과 슈만의 교향곡 3번 '단인'을 연주한다.

발레단은 오는 20일 '발레-갈라콘서트 #1'을 통해 4월 공연 예정인 '라 실피드'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3일 연주회 '봄의 꿈길에서'를 연다.

문의 062-613-83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냥' 3월호 나와 '펫팸족 천만시대'로 본 반려동물 명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개나 고양이 등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이들이 늘면서 '펫팸족(Petfam: Pet+Family)'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반려동물은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았지만 동물복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3월호에서는 특집 '펫팸족 천만시대'를 통해 반려동물 명암을 들여다보고 애견들의 놀이시설인 유치원과 카페, 운동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왔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전방위 예술 애호가 윤광준(60) 작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글 쓰는 사진가, 오디오평론가, 칼럼니스트 등으로 부른다. 오 작가의 다채롭고 지속적인 예술적 활동영역을 감안하면 전방위 아트 워커(Art Worker)나 '딜레탕트'(예술애호가)에 가깝다.

올해 부활한 해남 마화축제와 목포 유달산 봄축제 외에도 다양한 꽃축제가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년보다 다소 빨라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남도택리지'가 향한 곳은 '늪의 고장' 영암이다. 월출산 자락에 이어지는 기암절벽은 숲속의 기를 받고 거닐 수 있는 힐링 둘레길이다. 2200여 년 유서 깊은 역사를 이어오는 구립 전통마을을 돌담길 역시 봄 햇살을 받으며 아득한 시간여

행을 하기에 적합하다. '해외 문화 현장'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의 나라로 잘 알려진 덴마크 뉴 칼스버그 글립토테크 미술관을 다녀왔다. 칼스버그의 창업자와 그의 아들은 막대한 부를 세습한 후 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사회에 환원했다. 북유럽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불리는 뉴 칼스버그 글립토테크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떠나는 문학기행은 광주 풀꽃문학관이다. 자갈산 봄축제 외에도 다양한 꽃축제가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년보다 다소 빨라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 KIA타이거즈와 광주FC 열정의 전지훈련 현장인 오키나와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은남도 영화사의 증인 '광주극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3월6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꽃망울이 터지며 봄기운이 완연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 합창단, 발레단, 오페라단 등 시립예술단은 3월 한 달간 생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이른 봄을 알린다.

시립합창단 7일 문예회관서 영·호남 화합무대 시향 8일 '슈만의 봄'·15일 가족 음악회 20일 발레단 갈라 콘서트·23일 소년소녀합창단

2부 무대에는 대구시립합창단이 안성태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 안호영 편곡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작곡가 이근용의 작품인 'A.I.M을 위한 미사'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이 곡에서는 소프라노 나영희, 테너 정무시가 솔로 부분을 맡는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시향은 8일 오후 7시 30분 '슈만의 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341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꾸민다. 김홍재 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등 활기찬 곡들로 봄을 노래한다.

하노이 답사 참가자 모집 인문학교육연구소 9일까지

동물 가면 쓴 인간들의 놀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 17일까지 조은솔전



'Masquerade_Merry go round'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아트라운지 시즌1 신춘 릴레이 기획전에 조은솔 작가를 초대했다. 미술관은 기획전으로 2019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진행중이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조 작가는 주로 동물의 가면 쓴 인간들의 놀이와 행위를 캔버스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해왔다.

조 작가는 인간 관계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한 후 그 행위를 작품에 재현한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가면은 사회 속에 살아가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는 장치로 이상과 현실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 등에 선정됐다. 문의 062-613-71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계 거장' 앙드레 프레빈 타계

미국의 세계적인 지휘자 겸 작곡가 앙드레 프레빈(사진)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8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프레빈은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로 클래식과 재즈, 할리우드 영화음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명곡을 남겼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를 지내며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이름을 떨쳤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정정화는 1970년 런던 로열페스티벌홀에서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해 유럽 클래식계의 스타로 부상한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

1929년 독일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프레빈은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13차례 올랐고 영화 '지지'(1958년), '포기와 베스'(1959년), '당신에게 오늘 밤을'(1963년)과 '마이 페어 레이디'(1964년) 등으로 4차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 그는 1967년 휴스턴 심포니의 음악 감독에 취임했고 이후 LSO에서는 1968년부터 11년간 상임 지휘자로 지내면서 수 십장의 음반도 제작했다. /연합뉴스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로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박상민

ShinYang Park Hotel